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의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874호 현대불교 29
2012년 2월 8일(음 1월 17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나로부터 알아야 진짜로 자유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2(남): 큰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큰스님: 입력과 출력요?

질문자2(남): 예, 입력한 대로 출력이 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왕이면 좋은 거 입력해 갖고 좋은 출력이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왕 입력하려면 크게 입력해 갖고 크게 출력 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방진지 모르겠지만 이런 입력을 해 봤습니다. '이 생 몸 벗기 전에 꼭 큰스님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 하는 입력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거는 과대망상증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분명히 자성불은 있는데 그걸 있다고 믿고 내가 꼭 이 생에 몸 벗기 전에 이걸 해 보겠다는 입력을 시키면 입력한 대로 나온다 하니까 분명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첫째는 '이 생에 스님 육신이 아닌 알갱이를 꼭 닮고 가겠다.' 고 입력한다면 그거는 어떻습니까?

큰스님: 그것도 맞습니다. 물론 입력을 하되 내가 판단을 잘해야겠죠. 그러나 그 경우에는 판단을 하고 안 하고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건입니다. 입력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벌써 문을 막는 겁니다. 잘되려니, 그렇게 되려니, 안되려니 하는 이유가 붙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이유도 붙이지 말고 그냥 무조건 나도 불성이 있고 저 스님도 불성이 있으니까, 저 스님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고 하세요. 불성을 발견해서 융통성 있게, 이 세상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베풀어 주는 그런 지혜 넓은 분이, 일체 제불이, 일체 선지식이 있다면, 다 통하는 일이고 다... 나쁜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입력을 할 때에도 '이게 언제 될까? 이게 될까, 안 될까? 아이, 나 같은 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거기 들어간다면, 금반지를 만드는데 그냥 무쇠도 넣고, 허허하... 다른 걸 모두 넣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반지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냥 입력을 해 두고 '이생에 못하면 내생이라도 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가지, 즉 말하자면 여러분이 부산을 지금 갈때에 말입니다. 아주 급하게 부산을 꼭 가야 하는데 '이거 가야 옳은가?' 또 가다가도 '이거 가야 옳은가,

안 가야 옳은가?' 이러지 않잖아요? 내가 급해서 꼭 가야 할 일이라면 그냥 무조건이지, 내가 여길 가는데 지장이 없을까? 내가 가는데 실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갑니까?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빌딩에 들어가서 자는데 불이 났다 합시다. 불이 나니까 살 궁리만, 살 궁리도 아니고 그냥 구멍을 뚫고 나갈 생각만 하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불이 그냥 전부 타올라서 사방이 막혔는데 내가 어디로 나가야 나갈 수 있는가? 요것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기가 죽어 갈 때, 숨이 딱 끊어지려고 할 때는 자식들을, 조그만 새끼들을 죽 앓혀 놔어도 그건 어쩔 수 없이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질문자2(남): 맞습니다.

큰스님: 네, 내가 숨이 끊어지게 돼 있을 때는 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자식이고 뭐고 그것도 숨이 붙어 있고 살 때 얘기고. 그런 마음 이라이판이 된다 이런 얘기고. 오직 내가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 그 구멍이라는 건 (가슴을 짚어 보시며) 여기 자기 선정의 구멍밖에 없어요. 통신이 되는 것도 그렇구요. 하다못해 새 한 마리도 통신을 하려면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서산 대사가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 데도 그 마음이 통해서 새가 됐으니까, 서산 대사가 새가 돼 버렸으니까 새가 자기가 앓고 싶은 대로 앓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실답지 않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공부하는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공부입니다.

다. 그래서 정수에 자동적인 컴퓨터가 누구보다 있으니까 내가 관하는 것이 대뇌를 통해서, 사람 기체가 그렇게 돼 있던 얘깁니다. 대뇌를 통해서 정수에 입력이 된다는 얘깁니다. 정수에 입력이 되면 사대(四大)로도 통신이 됩니다. 또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서는 작용도 해 주게 된다 하는 것은 그렇게 입력이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살들이, 즉 말하자면 어떤 용도에 따라서 응신이 될 때에 지장도 되고, 관세음도 되고, 또 약사도 되고, 칠성 부처도 되고, 주해신의 보살도 되고, 주산신의 보살도 되고, 자신의 보살도 되고 그냥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천차만별로 화해서 응신으로서 등장을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해야 여러분이, 한 마디

해서는 생소하다가 두 마디 해서는 좀 낫고 또 세 마디 하면은 좀 더 낫고 그러다 보면 아주 자기 게 돼 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냥 실천을 하는 거죠. 작든 크든 간에 내 앞에 대지를 하는... 그냥 그냥 실천을 하는 거예요. 잘 안되면 되게끔 하는 실천. 그러나 자기가 과거로부터 지어 놓은 그 모든 것은 차원이 넓어져야 그게 없어지지 차원이 좁은 대로 그냥 있으면 그걸 아무리 되게 하려 해도 자기 마음이 좁기 때문에, 차원이 좁기 때문에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하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힘들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입력이 됐다고 믿었으면 '아, 입력했으면 나오겠지.' 그냥 그대로 이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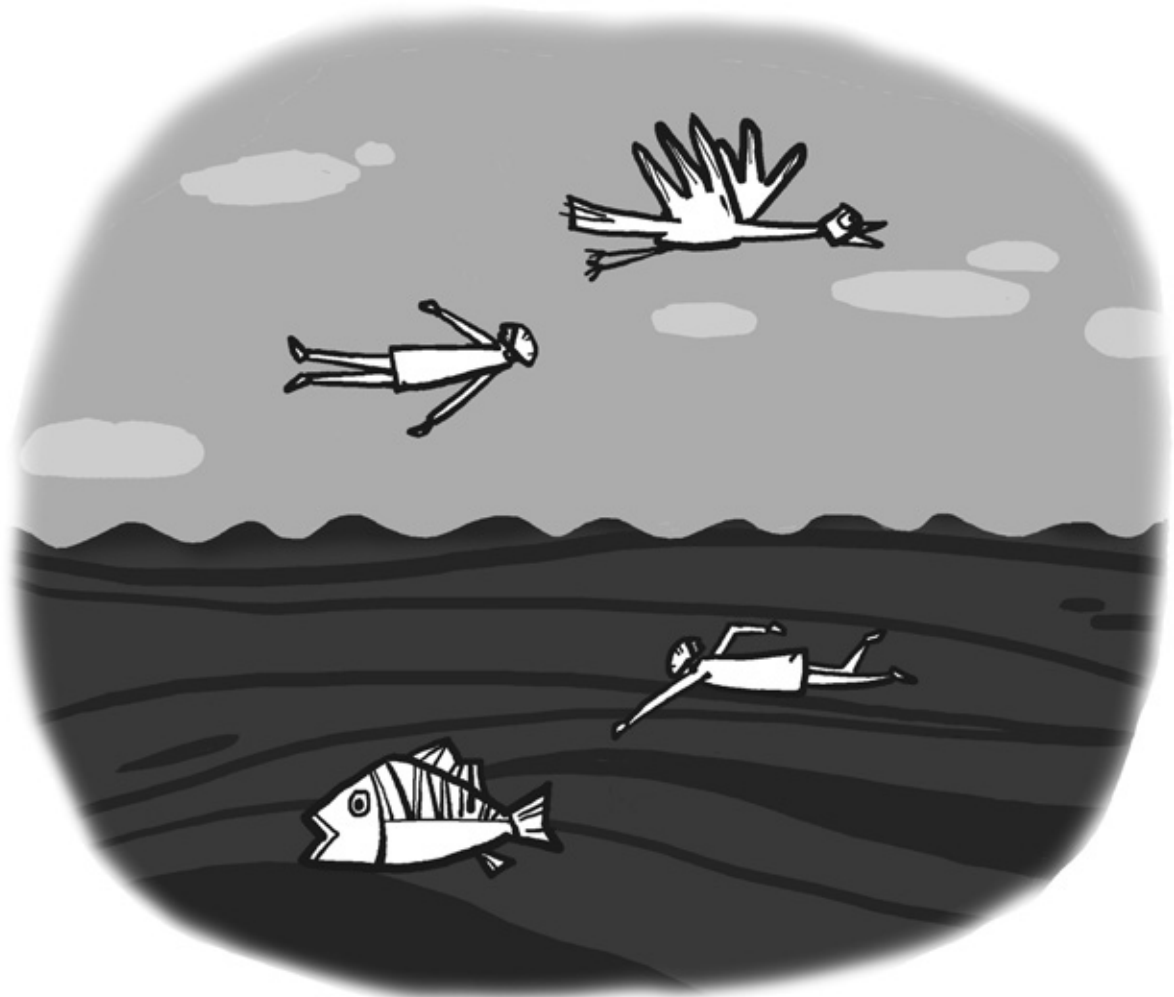
지난번에 어느 보살 얘기가요, 자식이 학교도 떨어지고 삼수를 했다던가 뭐 어쨌다고 그러는데, 그냥 불등고 불어지고 울고불고 야단났어요. 그래서 자식이라는 착을 떼지 못하느냐고, '왜 자식 마음대로 가서 학교도 불지 못하게 하고, 마음대로 잘되지도 못하게 그냥 딱 붙들고 있느냐.' 하고 막 야단을 쳤더니 엇그저께 웃으면서 와서 '아이구, 그거 떼느라고 혼났어요. 그거를 다 떼고 나니까 붙었어요.' 그래서 웃었어요.

이게 착을 두면 외려 자기와 더불어 딱 붙들려서 자기 영혼을 자기 근본이 리드를 못해요.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셈이니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붙들지 마세요. 자동적으로 그냥... 부드럽게 대해 주면서 그대로 놔 보세요. 그러면 '마음, 그거는 둘 아니니까 내 마음도 내 촛불과 같고, 내 촛불도 네 촛불과 같으니 둘 아닌데 어딜 가겠느냐? 나쁜 일을 하겠느냐.' 하고 진짜로 믿어 준다면 그 아들이 그대로 돌아와요. 그대로 돼요.

여자나 남자나 똑같아요. 모습은 여자나 남자나 이렇게 부르지만 마음이야 어쨌든 여자 남자가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물리가 터져서 지혜로워지면 차원이 높아지죠. 차원이 동결어지고 그러면 스스로서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도,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는 데도 그냥 그렇게, 털구멍 끼었다가 도로 빼고, 요렇게 끼었다가 도로 빼서 쓰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융통성 있는 마음이 돼서, 여기서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다 그냥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하고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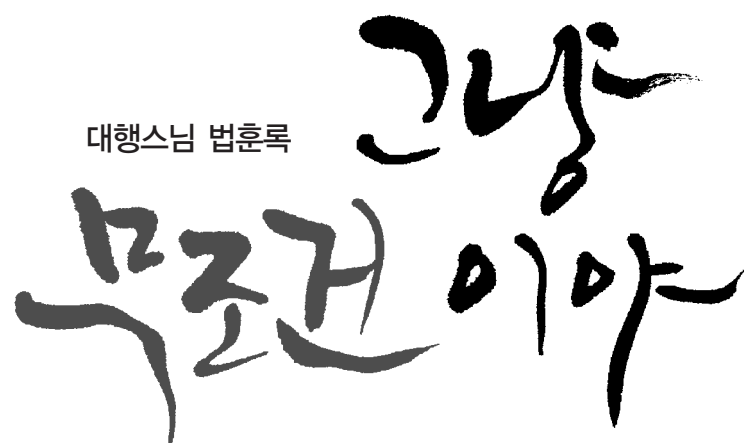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호는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 본문 중에서



어떤 이유도 붙이지 말고 무조건 믿고 들어가야

29면에서 계속

질문자2(남): 예, 스님,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이 공부할 적에는 '주인공, 너는 뭐, 뭐, 뭐 할 수 있잖아. 네가 해결해.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탁 나면 그냥 '해결해', '해결해', '해결해' 하고 난 뒤에 바로 '해결해 줘서 고마워!' 하고 또 가거든요. 가다가 생각이 또 나면 '해결해', '해결해' 하고 바로 '고마워, 해결해 줘서' 이렇게 하거든요. 처음 배울 적에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요렇게 요렇게 너는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냥 '해결해, 고마워!' 이렇게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크스님: 아, '해결해' 해 놓고선 그냥 해결되기도 전에 고맙다는 말이 뒤따라요? 하하하... 하여튼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잘하는 건데요. 상황에 따라서 고맙다고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지극하게 한다 하더라도 주인공은 자기 전 조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위치 자기 아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등하단 얘기에요, 자기와 자기가. 자와 부가 평등하다.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지식 부리듯 하지 말란 얘지요. 즉 말하자면 유하게, '너만이 해결할 수 있잖아.' 그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군요. 터무니없는 거를 자기 나름의 상상으로 쓸데없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 입력을 하지 마세요. 꼭 나한테 해당하는 거를 하시란 얘지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또 연구하실 분들은 자기가 어떠한 생각을 했을 때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도 거기에 불을 자료가 될 수 있다면 입력을 해도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중에 혹은 있었는데, 그 혹은 제거를 하면 어니이를 다시는 못 낳는다고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진짜로 관해 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며칠 뒤에 다시 진찰하려고 가니까 다 낫고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쉽게 없어지니까 쉽게만 생각하고, 자기가 고생하고 고통을 당할 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데도 그게 쉽게 되니까 또 이상스럽게 생각을 하는 모양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편하고 좋은 것인데도 어떤 땐 좀 애석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쉽고 간편한데 자기는 가서 수술을 해야 하고 그 뭐가, 뭐 씌는 거 있잖아, 방사선인가, 뭐, 그거를 꼭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속으로 '아이구, 저 방사선을 쬐면 또 탄내가 나빠질 텐데, 저거 그냥 죽을 때까지 아픈 거를 면치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어 가면서 여간 애석하지 않죠. 그러나 그 사람 마음을 빼고 내가 대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해 주는 사람은 못 안 됩니다. 진짜 가난하고 불쌍하기 그지없을 때, 병원에도 못 가고 그냥 찢절때는 사람에 한해서만 대신 내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는 자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결정이!

질문자3(남): 감사합니다. 크스님의 가르침 받게 된 지도 어언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의심도 가고 체험했던 것에 대해 의문점도 있고 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크스님: 편히 앉아서 말씀하세요.
질문자3(남): 죄송합니다. 가끔 가다가 '어떻게 만났는데 내가 지금 무얼하고 있는 건가' 하면서 스스로 뭐 재채기랄까 이렇게 독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우선 어떤 체험을 했는데 잘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어떤 스님으로부터 호흡법을 좀 지도를 받고 있었는데 크스님 가르침을 받고부터는 일절 거기에 가지 않았습다. 한번은 저

자가기를 얻는다고 해서 배꼽 밑에 항상 축적하고 그렇게 기를 어디서 받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자기한테서 기가 스스로 생기는데도...

그러니까 그 나무도, 그게 우리 체나 마찬가지로 거든요. 나무도 생각이 있고 생명이 있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너한테 내가 기를 줄지 언정 어떻게 나무에서 네 기를 뺏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대로 보여준 거죠. 그대로요. 그것은 나무의 마음과 맥의 마음이 통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나무 뿐이 아니라 높이 선 바위라 할지라도, 내내도 불잡을 것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마음으로는 서로 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바위가 됐다가 바위 마음이 나한테로 오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를 가지고 있어서 물질적으로는 들이한테 불을 수가 없지만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

질문자3(남):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는 입이 잘 안 떨어져 말씀을 잘 못 드렸 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끔 가다가 이 공부를 내가 어떻게 만났는데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거 힘이 미약 해서 도대체 공부가 안되는 건가 싶어서 스스로 판단을 잘 못 내릴 때가 있습니다.

크스님: 그러면 안 되죠. 이게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생활이 즉, 교제와 공부입니다. 인생 공부. 그런데 뭐, 여기서 이런 걸 안 한다 하더라도 맥은 살아나면서 겪어야 하고 그런데 뭐 '내가 다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이런 거 걱정을 합니까? 사실상 나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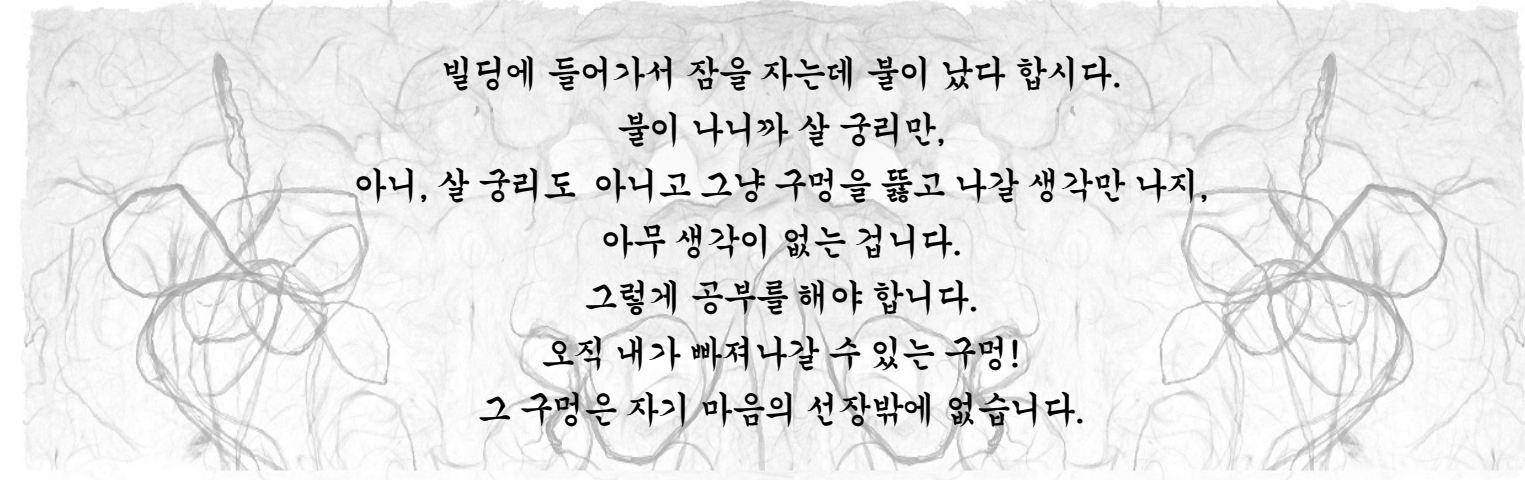
마음으로 점프를 해서라도 내 할 일을 해 가면서 내 가정을 지켜 가면서... 불교를 믿는 사람이 불사한다고 하는 것만이 불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아나가는 게 그게 불사입니다. 내 알도 다 가리지 못하고 남을 도와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욕심입니다. 또 그것도 그러니까 내 알을 가지고 가면서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이 아프면... 그런 보살들이 많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책을 주고 그렇게 관하라고 했더니 관해서 그냥 나왔다고, 아주 고맙다고 그러더라는 얘기를 해서, 그 사람 그것 나은 거만 알지 나중에 어떠한 일이 생기면 또 대치를 못할 테니까 열심히 관하는 도리를 잘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저 지나가다, 오다가도 소는 하나만 쳐다봐도 그 소가 그저 무명을 벗고 오다음 생애... 소는 또 빨리 죽죠. 잡아 먹으니까. 허허하... 그러니까 그저 다음 생애 나오더라도 인간으로, 그 순하다 순한 눈치처럼 다시 아주 출중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 줘야죠. 사람으로 태어나기만 해서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의 됴됨이가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적으로 우리 지구가, 사람들 생명을 살리고 있는 이 지구도 수명이 또 길어질 테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것은 나만이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알고 나면 길을 가다 오다도 생각이 나면 그냥...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무주상 보시를 하게 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저저는 저려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는 꼭 불을 받아야 되거든요. 허허하...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법관들이 되시는 거죠. 진짜입니다. 그거. 법관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가는 이 도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그냥 절대적인 관사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사 노릇을 한다 하고, 그 책임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을 아주 올바르게 투철하게 해야죠. 그냥 아무렇게나 해 버리면, 아무렇게나 된다면 먼저 우리가 고통스러우니까. 지구가 잘 돼야지 지구가 그 패어진 것도 매꾸지고, 또 오존층이 뚫어진 것도 매꾸지고, 이렇게 모든 거를 다 해 나가야 됩니다. 잘라진 것도, 뚫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원력이 벌써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으니까요. 정말입니다. 이걸 거짓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성이 그렇게 귀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 위 법문은 1997년 2월 2일 범행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미음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미음원)에서든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녁을 먹고 운동을 가볍게 하다가 '도대체 이 천지만물과 내가 불이 아닐 텐데 어찌 내가 이렇게 모르는가.' 해서 합장을 한번 하고는, 예전에 어떤 분이 소나무의 기를 뺏어서 소나무를 죽이는 걸 봤습니다. 저의 집 화분에 심어져 있는 벤자민 나무를 보고 '너에게 기운을 줄지 언정 어찌 뺏을 수가 있겠는가.' 하며 몸을 풀고 있었습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온 천지에서 그냥 그대로 사랑하는 기운이 팍 밀려와서 이글이 글이글하더니 그 나무로 확 물러가는 것이었습니다. 황홀하다고 할까요? 너무나 이상해서 나도 모르게 '아-' 하면서 손을 대는 순간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뭘 잘못 체험했는 건가. 이것이 과연 정말 천지 만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가. 우선 그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스님: 허허하... 누구냐가 다 기를 생기게 하고 기를 없애지게 할 수 있죠. 그것은 이렇게 찰나찰나 나누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 이 전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용이 스스로 자기 마음에 의해서 다 되는 건데,

에 항상 어디로든지 들어가다 나갔다 해도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내 마음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일임하고 거기다가 믿고 입력을 한다면, 입력을 한다고 하면 또 어떻게 들을지 모르니까 거기에다가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큰 회사에 수백 명이 있다 하더라도 원자에다가 놓으면 원자에서 입자가 수백 명의 입자로 화해서 들어가서 조절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 공부가 엄청난 공부라서, 그전에도 내가 그런 말을 했죠. 사람이 차원이 높아져야 허공의 에너지도 꺼내 쓸 수가 있다고요. 내 차원이 높지 못하면 꺼내 쓸 수가 없다고요. 옛날에는 그래도 정신계를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예 정신 계고 물질계고 그냥 다 팽개치고, 자기 몸뚱이, 자기 정신은 다 팽개치고, 지금 딴 형상에다가 빌고 기도하고 그러잖습니까? 자기로부터 소중 한 게 있는 거지 자기가 없는데 무슨 소중한 게 있었습니까? 하여튼 나로부터 알아서 가게 되면 진짜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모두.

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있는 건데 내가 공부가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거는 못 믿기 때문이거든요.

꽃나무가 만약에 자기 뿌리를 못 믿어서 '내가 지금 꽃이 피고 있는가, 안 피고 있는가?' 이 런다면 그게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나무들이 '아, 내가 지금 열매가 맺을까? 꽃은 피었는데 열매가 맺을까, 못 맺을까?' 이 런다면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냥 뿌리가 있기 때문에 싹이 있으니까 그대로, 그대로 여여하게 살고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이리저리 없습니까? 그런데 뭘 그 거를 내가 공부가 잘되는가 안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 믿으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완벽하게 내 뿌리가 있다는 것만 믿는다면 그 싹은 거기에 의지하고 전체가 거기에 의지하게 됩니다.

질문자3(남): 예, 감사합니다.
크스님: 또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사회자: 끝났습니다.
크스님: 예, 하여튼 율해일랑은 더 한층 내가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New 신제품 흑룡초



신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삼환양초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아랑 호랑이 양초 연봉 원기둥 7.0 x 34cm
아랑 양초 연봉 원기둥 7.0 x 34cm
육각초 7.0 x 34



연화 대 9.5 x 11cm, 연화 중 9 x 10cm, 연화 소 7 x 6.5cm
밀납연화 소 7 x 6.5cm



크기 7.5 x 29cm

임진년은 흑룡의 해입니다
흑룡초로 소원성취 기도하십시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외가바 후리자아 영원향 정.단.소바라 우리향 백단향, 설중매, 인심향, 대발향, 속향, 백목향, 목향 향수림